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 교과서 분석 및 교사 인식 연구*

An Analysis of the Elementary Integrated Curriculum ‘Pleasant Life’ Textbooks and Teachers’ Perceptions Under the 2022 Revised Curriculum

김경태** · 김민지***

Kyoungtai Kim  · Minji Kim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의 음악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교사들의 활용 경험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과서의 제재곡, 활동 및 발문, 악보 유형 등을 분석하고 통합 교과서 활용 경험이 있는 초등 1-2학년 담임교사 14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교과서에 다양한 장르의 곡이 제시되어 있지만 학생 발달 단계와 맞지 않은 곡들이 다수 있었고, 가창 영역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음악 고유의 활동이 많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악보 없이 노랫말만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이러한 경우 교사의 수업 활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확인했다. 또한, 다른 영역에 비해 음악 활동 과정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도 확인하였다. 향후 교육과정 개발 시 적절한 곡 선정, 음악 활동의 다양화, 악보 제공 방식 개선, 수업 안내 강화, 다른 교과와의 연계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 초등음악교육, 교과서 분석, 교사 인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usic-related content in the ‘Pleasant Life’ Textbook under the 2022 revised curriculum and explore teachers’ experiences in utilizing it. The analysis focused on song selection, activities, prompts, and music notation types, supplemented by interviews with 14 teachers who have experience using the textbook. The findings indicate that while the textbook includes various genres, many songs are not developmentally appropriate. Singing activities dominate, but music-specific activities are limited. It was found that the majority of songs were presented without musical notation, consisting only of lyrics, which teachers reported as challenging to utilize in their lessons. Additionally, music activities are less structured than those in other subject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improving song selection, diversifying music activities, enhancing notation formats, strengthening instructional guidance, and fostering interdisciplinary connections. Further research is encouraged to refine the curriculum.

Key words: integrated curriculum, pleasant life, elementary music education, textbook analysis, teacher perception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24S1A5C3A03046168).

** First author, E-mail: nanune@cnue.ac.kr

Assistant Professor,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126 Gongji-ro, Chuncheon, Gangwon, South Korea

*** Corresponding author, E-mail: minjikim@sogang.ac.kr

Postdoctoral Researcher, Future Lab, Sogang University, 35 Baekbeom-ro, Mapo-gu, Seoul, South Korea

I. 서론

미래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교 교육은 지속적인 구조적 변화와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교육과정은 전통적인 교사 중심의 전달식 수업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 교과 간 융합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 양성을 핵심 목표로 삼는다. 이러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과정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초등 저학년의 발달 특성과 학습 흥미를 고려하여 교과 간 경계를 유연하게 연결하는 통합교과 중심의 교육이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도덕·사회·국어 영역의 ‘바른 생활’, 음악·미술·체육 영역의 ‘즐거운 생활’, 수학·과학 영역의 ‘슬기로운 생활’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의 인지력, 정서적, 신체적 발달을 아우르는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즐거운 생활’ 교과는 음악·미술·체육 등 예술 및 신체 활동을 통합하여 학생들이 감각적이고 창의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 창의적 움직임과 같은 다양한 음악 활동을 접하게 되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감성적, 신체적, 사회적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22).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즐거운 생활’ 교과를 통해 기대하는 바와는 달리 음악 활동에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 발견되고 있다.

이동희와 박지영(Lee & Park, 2024a)은 국악 및 음악 교육 내용이 다소 분절적이며 미술이나 체육처럼 구체적 연계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양소영(Yang, 2024) 및 양소영 외(Yang et al., 2024)의 연구에서는 주제 중심 구성에서 음악 활동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언급하였다. 오지향 외(Oh et al., 2024)는 ‘즐거운 생활’ 교과서의 음악 영역이 학생들에게 충분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외국 음악과 교육과정과의 비교를 통해 교과서 내 음악 교육의 비중과 내용이 보다 체계적·실용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김은주(Kim, 2024)는 2022년 개정 통합 교육과정이 풍부한 음악 교육 내용을 제공하도록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음악의 개념, 요소 및 상위 학년의 연계성이 부족해 음악이 보조적 역할에 머무른다고 분석하였다.

이렇듯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통합 교과서를 활용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교사들의 통합 교과서 활용 경험에 대한 연구야 말로 새로 개발된 통합 교과서에 대해, 특히 음악 활동에 대한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의 음악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교사들의 교과서 활용 경험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①제재곡, ②활동 영역 및 내용, ③악보, ④타 영역과 비교를 중심으로 ‘즐거운

생활’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교사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2024학년도에 초등학교 1-2학년을 담당한 교사 14명을 대상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즐거운 생활’ 교과서 분석과 교사 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결과로 향후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 역시 본 연구의 또 다른 목표라 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통합교과의 이해

1) 통합교과의 개념 및 출현 배경

통합교과는 기존 교과 간의 경계를 넘어 주제나 활동을 중심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교과를 의미한다(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2025). 현재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1-2학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학교’, ‘가족’ 등의 주제를 바탕으로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을 포함한 통합교과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이는 개별 교과의 단편적인 지식 전달에서 벗어나 실생활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와 같이 통합교과는 학습자 중심 교육 패러다임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실생활과 연계된 학습을 촉진하려는 교육적 필요에서 출발하였다(Lee, 2022). 특히, 20세기 초 경험중심 철학의 대두와 유럽에서 강조된 주제 중심 및 탐구 중심 교육과정의 경향이 우리나라 통합교과 개발에 영향을 미쳤다(Lee, 2011; Kim, 2024). 또한,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도 초등 저학년 학생들은 인지 발달 수준이 아직 미분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개념 학습보다는 종합적인 경험을 통한 학습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개별 교과 개념을 보다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Kim, 2020; Jeong et al., 2011).

국내에서 통합교과는 약 50년 전 처음 시도되었는데 1981년 4차 교육과정에서 ‘즐거운 생활’이 그 출발점이 된다. 이전 3차 교육과정까지는 7개의 독립된 교과로 운영되었으나, 4차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인간 중심 교육과정으로 변화하면서 포괄적인 음악교육을 수용하고 학습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이후 교육 내용과 수준의 적정화,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을 거듭하면서 현재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통합교과로 정착되었다(Ministry of Education, 1981; Ministry of Education, 2015; Park, 2012;

Lee & Park, 2024).

2) 통합 교육과정의 역사적 변천

우리나라에서 통합교과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81년 제4차 교육과정부터이며 이후 지속적인 개정을 거쳐 현재의 형태로 발전해왔다. 최초의 통합 교과서는 기존의 국어, 도덕, 산수, 자연, 음악 등 개별 교과를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통합하여 운영하였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Ministry of Education, 1981).

제5차 교육과정(1987)에서는 교과 간 연계를 강화하여 즐거운 생활이 음악, 미술, 체육을 포함하는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학습 경험의 유기적 연계를 촉진하고자 하였다(Kim, 2024).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교과를 연결하였고 7차 교육과정에서는 활동주제를 도입하여 내용영역이 재편되었다(Lee & Park, 2024). 2007년 개정 통합교과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심리-사회적 접근을 도입하였으나, 본질적으로는 활동중심 주제 통합의 연장선상이라 할 수 있다(Park, 2012).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통합적 운영을 위한 주제 교과서를 도입하였고(Lee & Park, 2024a)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도입한 것이 주목되며 ‘즐거운 생활’에서는 심미적 감성, 창의적 사고, 의사소통 역량을 강조하였다. 최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 중심의 놀이 기반 통합학습으로의 전환되면서 교사와 학생이 지역 맥락 속에서 주제를 공동 개발하도록 권한이 이양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정리한 내용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Historical evolution of the integrated curriculum

Period	Major changes	Characteristics and details
4th curriculum reform (1981)	Introduction of the first integrated curriculum	Introduction of ‘Disciplined life’, ‘Intelligent life’, and ‘Pleasant life’; integration of seven independent subjects into a unified curriculum.
5th curriculum reform (1987)	Strengthening inter-subject connections	Music, art, and physical education were integrated, but subject-centered teaching remained common
6th curriculum reform (1992)	Integration of subjects based on students’ daily life	Emphasized connection between school learning and everyday experiences; developed interdisciplinary textbooks.
7th curriculum reform (1997)	Introduction of integrated subjects through activity-based thematic learning	Integration through activity-centered learning and reorganization of content areas

<Table 1> Continued

Period	Major changes	Characteristics and details
2007 curriculum reform (2007)	Continuation and systematization of theme-based approach	Structured the curriculum by subdividing learning content
2009 curriculum reform (2009)	Unification of themes across the three integrated subjects	Introduction of subject-specific textbooks by theme
2015 curriculum reform (2015)	Introduction of key competencies as a core framework	In Pleasant life, emphasis was placed on aesthetic sensitivity, creative thinking, and communication competencies
2022 curriculum reform (2022)	Shift toward student-centered, play-based integrated learning	Emphasized local development of themes by teachers and students to reflect real-life contexts

3) 통합 교육과정의 목적

통합 교육과정은 서로 다른 교과 간의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학습자가 지식을 보다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이를 실제 삶의 맥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수 방식이다. 이는 개별 교과 중심의 단편적 학습을 넘어서, 학생의 전인적 발달과 창의적 사고력 증진을 지향한다.

첫째, 학습자의 인지·정의·심동적 영역을 균형 있게 발달시키며, 음악·미술·체육 등의 통합 활동을 통해 감성적 능력과 학습 동기를 강화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22; Lee & Park, 2024a). 둘째, 실생활과 연계된 탐구 중심 학습을 강조하여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운다(Kim, 2016; Park, 2012). 셋째, 다양한 교과 개념을 융합하여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한다. 넷째,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참여도를 높이는 놀이 및 감각적 요소를 포함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22). 결과적으로, 통합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유기적이고 주체적인 학습을 경험하도록 지원하는 교육적 접근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Lee & Park, 2020).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Table 2> Objectives of the integrated curriculum

	Objectives of the integrated curriculum
1	To achieve holistic development
2	To enhance learning connected to real-life experiences
3	To foster creative thinking and problem-solving skills
4	To stimulate learners' interest and motivation

2. 2022 개정 통합 교육과정의 이해

1) 2022 개정 통합 교육과정의 성격 및 핵심 아이디어

2022 개정 통합 교육과정은 ‘지금-여기-우리 삶’을 중심으로 한 배움을 추구하며, 불확실한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생의 주체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교수·학습 접근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방향이다. 또한, 현장 적용을 고려하여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2022 개정 통합 교육과정은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과로 구성되었는데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미래 인재상으로 설정하였다. 통합교과 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지금-여기-우리 삶’이라는 철학적 개념으로 설정하였으며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학습한 내용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핵심 역량으로 규정하였는데 <Table 3>을 통해 영역과 핵심 아이디어를 확인할 수 있다.

<Table 3> Area and key ideas of the 2022 revised integrated curriculum for elementary education (Ministry of Education, 2022)

Area	Key ideas
Who are we living as?	• We live while thinking about who we are. • We live by forming relationships with one another.
Where do we live?	• We live within various communities. • We live by expanding our living spaces.
How are we living now?	• We live according to various types of cycles. • We live while thinking about the past, present, and future.
What do we do in life?	• We live by experiencing, imagining, and creating. • We live by feeling, thinking, and expressing.

2) ‘즐거운 생활’ 목표 및 내용 체계

2022 개정 통합 교육과정에서는 ‘즐거운 생활’ 교과를 ‘놀이 경험 중심 교과’라고 정의한다. “학생은 즐거운 생활 교과를 통해 신체 활동과 문화 예술 활동을 경험하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가운데 놀이에 몰입하여 즐긴다”라고 제시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22). ‘놀이를 즐기며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것을 주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공동체와 소통하고, 감정과 정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예술적 감각을 함양하고 삶을 풍요롭게 향유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즐거운 생활’ 교과는 세 가지 주요 목표를 제시한다. 첫째, 문화예술 활동과 신체활동을 통해 현재의 순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학생들이 자신의 주변 환경과 장소에서 놀이를 통해 감정과 정서를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한다. 셋째, 공동체와 더불어 생각이나 느낌을 나누며 창작과 표현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목표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 삶을 직접 경험하고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22).

‘즐거운 생활’ 교과는 총 32개의 내용 요소로 구성되며, 이 중 ‘건강과 안전’, ‘신체인식과 감각’, ‘자연에서 놀이하기’ 등 9개는 신체활동 중심의 체육 관련 요소로 분류된다. 나머지는 음악, 미술, 체육의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 성격의 요소들이다. 또한 성취기준은 81개에서 48개로 간소화되어, 국가 교육과정은 핵심 기준만을 제시하고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유연한 적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Table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Table 4> Categories and content elements of the 2022 revised “Pleasure life” curriculum in elementary education (Ministry of Education, 2022)

Area	Category	Content elements
Who are we living as?	Knowledge & Understanding	Health and safety, Body awareness and senses, The beauty of nature
	Process & Skills	Playing, Communicating, Appreciating
	Values & Attitudes	Harmony, Healthy living, Safe living
Where do we live?	Knowledge & Understanding	Korean culture and arts, Foreign cultures and arts
	Process & Skills	Engaging in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Expressing, Imagining
	Values & Attitudes	Enjoyment of culture and arts
	Knowledge & Understanding	Changes in nature, Traditional culture, Children's rights
How are we living now?	Process & Skills	Playing in nature, Expressing creatively, Exercising rights
	Values & Attitudes	Active living, Appreciation of traditions, Safety and well-being
What do we do in life?	Knowledge & Understanding	Thoughts and feelings
	Process & Skills	Repairing and making, Playing, Exhibiting
	Values & Attitudes	Free imagination, Giving meaning

3) ‘즐거운 생활’ 관련 선행 연구

현재까지 ‘즐거운 생활’ 교과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먼저, 김서경

(Kim, 2010)은 즐거운 생활 교과서에서 음악 활동이 학생들의 감수성과 흥미를 고취시키며 자연스러운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하였다. 오지향 외(Oh et al., 2024)는 교과서 내 음악 영역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음악적 경험의 질이 다소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외국의 우수 음악 교육과정을 참고한 체계적·실용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송정주와 김아현(Song & Kim, 2024)은 감상 중심의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악기 연주, 신체 표현, 창작 활동 등 학생이 주도하는 능동적 학습 요소의 강화가 창의적 표현력과 실천적 참여를 촉진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곽현규와 이현지(Kwak & Lee, 2024) 및 이동희와 박지영(Lee & Park, 2024b), 권덕원(Kwon, 2018)은 음악 활동이 미술·체육뿐 아니라 국어, 수학, 과학 등 다양한 교과와 융합될 때 종합적 문제 해결 능력과 융합적 사고력 배양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교과 간 연계 강화와 국악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양소영 외(Yang et al., 2024)는 이러한 긍정적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함께 체계적인 교육자료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모두 음악 활동이 단순한 감상이나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초등학교 통합교과 내 음악 활동이 창의성, 감성적 표현, 학습 동기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음악적 내용이 충분히 구성되고 다른 교과와 연계될 때 학습 효과가 극대화되며, 실천적인 음악 활동이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제재곡, 활동 및 내용, 악보 제시 방법, 음악 활동 역할, 타 영역과의 비교 분석과 같은 구체적인 교과서 분석이 필요하며 새로 개발된 ‘즐거운 생활’을 활용한 교사 인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초등학교 1·2학년군 통합 교과서 16권과 2024학년도 통합 교과서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전국의 교사 14명으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5명, 2학년 담임교사 9명이다. 14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그 결과가 모든 초등교사의 경험을 포괄적으로 반영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Table 5> Study participants

Category	Grade in charge	Teaching experience
A	1	More than 20 years
B	1	More than 25 years
C	1	More than 20 years
D	1	More than 20 years
E	1	More than 20 years
F	2	More than 20 years
G	2	More than 5 years
H	2	More than 20 years
I	2	More than 1 years
J	2	More than 5 years
K	2	More than 15 years
L	2	More than 1 years
M	2	More than 10 years
N	2	More than 10 years

2.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먼저 현재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1·2학년군 통합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교과서에 제시된 음악 관련 제재를 확인하여 활동 영역 및 내용, 악보 제시 방법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타 영역과 비교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1·2학년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통합 교과서 활용 경험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 역시 제재곡, 음악 활동 및 내용, 악보, 음악 활동의 역할, 다른 활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질문하였다. 인터뷰 문항은 음악교육 내용 전문가 3인의 검토를 받아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14명 중 10명은 1월 16일부터 2월 21일까지 비대면으로 1:1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나머지 4명은 함께 모여 문항에 대해 답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교과서 분석 결과

1) 제재곡 분석

1-2학년 ‘즐거운 생활’에 등장하는 곡은 총 70개로 우리나라 민요 6곡, 동요 35곡, 전래 동요 14곡, 창작국악동요 7곡, 외국민요 4곡, 가요 1곡, 클래식 감상곡 2곡, 애국가 1곡이다. 이처럼 학년별로 다양한 장르가 고르게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6>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6> Analysis of songs by textbook

Grade (Semester)	Title	Type of songs (Number of songs)
1st (1st)	School	Creative gugak children's song (1), Traditional children's song (1), Children's song (3)
	People	Traditional children's song (2), Children's song (2)
	Country	National anthem (1), Traditional children's song (1), Children's song (1), Korean folk song (2)
	Exploration	Creative gugak children's song (1), Children's song (3)
1st (2nd)	One day	Traditional children's song (2), Children's song (3), Korean folk song (1), Classical music (2)
	Promise	Traditional children's song (2), Children's song (2)
	Imagination	Creative gugak children's song (1), Traditional children's song (2), Children's song (1)
	Story	Creative gugak children's song (1), Children's song (1)
2nd (1st)	Me	Children's song (3)
	Village	Children's song (4)
	World	Children's song (2), Korean folk song (1), Folk song (3)
	Nature	Creative gugak children's song (1), Traditional children's song (1), Children's song (1), Folk song (1)
2nd (2nd)	Seasons	Creative gugak children's song (1), Traditional children's song (1), Children's song (2)
	Figure	Traditional children's song (1), Children's song (2), Korean folk song (2)
	Objects	Creative gugak children's song (1), Children's song (2), Korean pop song (1)
	Memories	Traditional children's song (1), Children's song (3)

2) 활동 영역 및 내용 분석

활동 영역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합교과 교육과정에는 음악 중심의 활동 영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 내 음악 활동을 중심으로 분석하기 위해 편의상 음악 교육과정에서 구분하는 연주, 감상, 창작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주 영역은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기악과 가창 영역으로 나누었다.

<Table 7>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1-2학년 교과서를 분석하였을 때 가창 영역은 39회, 기악 영역은 4회, 감상 영역은 4회, 창작 영역 6회로 제시되어 있다. 흥미로운 것은 악곡이 제시되어 있지만 음악과 관련된 발문이 없는 제재가 15개나 있었는데 이 같은 경우 음악 제재곡은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교과서만을 가지고는 확인하기 어려워 보였다.

<Table 7> Analysis of musical activities by textbook

Grade (Semester)	Title	Types of musical activities (Numbers)
1st (1st)	School	None
	People	Singing (4)
	Our country	Singing (4)
	Exploration	Singing (4), Creation (1)
1st (2nd)	One day	Singing (3), Instrumental music (1), Music appreciation (3)
	Promise	None
	Imagination	Singing (2), Instrumental music (1), Creation (1)
	Story	Singing (1), Instrumental music (1)
2nd (1st)	Me	Singing (3), Creation (1)
	Village	Singing (2), Music appreciation (1), Creation (1)
	World	Singing (2)
	Nature	Singing (4)
2nd (2nd)	Seasons	Singing (3)
	Figure	Singing (3), Music appreciation (1), Creation (1)
	Objects	Singing (2), Instrumental music (1)
	Memories	Singing (2), Creation (1)

다음으로 영역별 활동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발문 내용을 분석하였다. 먼저, 가창영역 발문 41개를 분석하였는데 “~을 떠올리며 노래하기”, “~을 상상하며 노래하기”, “~을 생각하며 노래하기”, “~을 하며 노래하기”, “노래하기”, “노래 부르며 ~하기”, “~하고 노래하기” 등으로 구분된다.

<Table 8>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노래 부르며 ~하기”가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노래를 부르며 둘이 같이 걸어 볼까?”, “노래를 부르며 마을 탐험을 준비해 볼까”, “노래를 부르며 자연 속 보물을 찾아볼까?”, “노래를 부르며 흙 놀이를 해볼까?”와 같이 노래를 부르며 해당 단원의 주제에 맞는 활동을 하는 발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음악적 활동이라기보다 해당 주제 활동의 시작을 돕는 역할로 보인다.

<Table 8> Analysis of activity prompt

Category	Types of activity prompt	Numbers
Singing	Singing while recalling ~	8
	Singing while imagining ~	4
	Singing while thinking about ~	8
	Singing while engaging in ~	2
	Singing	8
	Engaging in ~while singing	9
Instrumental music	Performing rhythm while thinking about~	1
	Playing (accompanying) in accordance with the song	2
	Performing together	1
Music appreciation	Listening to identify ~	2
	Listening for comparison	1
	Listening practice	1
Creation	Altering song lyrics	4
	Create my own music	1
	Composing a village song	1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발문 유형이 “~을 떠올리며 노래하기”, “~을 생각하며 노래하기”, “노래하기” 이다. “노래하기”는 다른 활동을 돕거나 보조역할의 발문이 아닌 음악에 집중하는 의미있는 발문으로 보인다. “~을 떠올리며”, “~을 상상하며 노래하기”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어울리는 발문으로 보인다. 해당 발문을 분석해보면 “내가 자란 모습을 떠올리며 노래 부르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노래하기”, “해가 뜬 오후를 생각하며 노래하기”와 같이 음악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역시 해당 단원의 주제를 생각할 수 있는 도구로 음악 활동을 활용하는 발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식의 발문이 비슷한 유형인 “~을 상상하며 노래하기”까지 합치면 제시된 발문 총 39회 중 절반을 넘긴 총 20회가 제시되고 있다. 물론 생각하며, 떠올리며 노래하는 것 역시 음악을 경험하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 할 수도 있으나 보다 음악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음악 활동을 위해 다양한 발문의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 이 외 “~을 하며 노래하기” 같은 경우 2회 제시되고 있다.

기악 영역의 경우 “~을 생각하며 리듬치기”, “노래에 맞춰 연주하기”, “함께 연주하기” 등이 기악 활동에 관련된 발문으로 보인다. 감상 영역 역시 “찾아 들어보기”, “비교하며 들어보기”, “들어보기”와 같이 감상 영역에 어울리는 발문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창작 영역 역시 초등학교 교과에 많이 등장하는 “노랫말 바꾸기”, “나의 음악 만들기”, “마을 노래 만들기”와 같이 구체적이고 다양한 음악적 경험이 가능한 발문을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기악, 감상, 창작 같은 경우는 음악 활동에 적당한 발문으로 보이지만 가창같은 경우 음악 활동에 집중하는 발문이라기 보다 해당 주제와 단원의 시작 과정, 주제로 넘어 가는 역할에 활용되는 발문이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3) 악보 분석

다음으로 교과서에 제시된 악보에 대해 분석하였다. 악보는 노랫말만 제시되는 경우를 포함해 오선보, 가로 정간보, 가락선보 및 그림악보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었다. 전체 70개의 악보 중 악보 없이 가락이나 리듬 표시 없이 노랫말만 제시된 경우가 51개로 분석되었다. 노랫말만 제시될 경우 음의 높고 낮음, 음의 길고 짧음을 알 수 없어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음악을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오선보 같은 경우는 2학년에만 5회 등장하였으며 가로 정간보는 1학년 4회, 5학년 5회 제시되었다. 가락선보 및 그림 악보는 총 5회 등장하였다.

<Table 9> Analysis of musical notation type

Types of musical notation	Grade	Numbers
Lyrics without melody	1	29
	2	22
Five-line staff notation	1	0
	2	5
Horizontal jengganbo	1	4
	2	5
Graphic score or melody line notation	1	4
	2	1

4) 타 영역과 내용 제시 방법 비교

다음으로 ‘즐거운 생활’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영역의 교과서 활동 제시 내용과 음악 활동을 비교하였다. 먼저 음악 활동 같은 경우 구체적인 활동 과정이 제시된 경우가 드물었다. 악기 연주 같은 경우 연주 방법, 자세 등이 자세히 제시되어야 하지만 해당 내용이 포함된 활동은 매우 적다. 특히 가장 활동이 많음에도 노래 부르는 자세와 같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제시는 부족하였다. 예를 들어 마을 노래 만드는 활동과 나의 음악을 만드는 활동에서는 음악 창작 과정이 나올 법 한데 전혀 가이드가 제공되지 않아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 알기가 어려웠다.

반면, [Figure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놀이나 체육 활동은 말풍선과 삽화가 함께 제시되어 있어 각 단계별 활동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시각적 요소들은 학습자와 교사 모두가 활동의 흐름과 수행 방법을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수업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Figure 1] Comparison of music activities and play activities in village textbook

2. 교사 인터뷰 결과

다음은 2024학년도 통합 교과서를 활용한 1-2학년 교사 대상 인터뷰 결과이다. ‘즐거운 생활’ 교과서 분석 기준과 동일하게 제재곡, 활동 내용, 악보, 타 영역과 비교, 교과서내 음악 활동의 역할을 중심으로 질문하였다.

1) 제재곡 적절성 및 제재곡의 음악 활동 안내

먼저 제재곡의 적절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몇몇 교사로부터 통합교과로서 제재곡이 적절했다고 응답한 결과를 얻은 반면, 대다수 교사는 주제에 맞춰 활동이 진행되기 때문에 음악을 끼워 맞춘 것 같았다고 응답하였다. 다수의 교사가 주제에 충실하다보니 학생들의 인지 발달 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제재곡이 많아 아쉬웠다는 응답과 익숙하지 않은 곡이 많았다고 응답하였다. 2학년 담당 교사 중 제재가 적절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으며 대부분의 교사가 ‘제재곡을 주제에 끼워 맞췄다’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처음에는 철학적인 주제라고 생각해서 어려운 느낌이었지만 계속 보니 통합으로 묶여 있어 적절하게 느꼈다(1학년 담당교사 C).

1학년 학생이 부르기에 긴 곡이 있었습니다. 또한 엇박자, 부점처럼 아이들이 쉽게 부르지 못하는 요소들이 있는 곡들이 있었고 음역도 아이들이 부르기에 어려운 곡이 있었습니다. 3학년 수준에 맞는 제재같이 보였습니다. 한 차시 안에서 소화하기 어려웠습니다(1학년 담당교사 D).

주제에 맞춰 활동이 진행되기 때문에 음악도 억지로 끼워 맞춘 느낌이 듭니다(1학년 담당교사 A).

주제 자체가 음악 활동을 위한 주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주제를 잡고 음악을 걸다리로 끼워 맞춰 넣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동의 음악적 인지 발달 과정을 무시한 악곡 선정이 아쉽습니다. 2학년 ‘봄이 가고 여름 오면’은 고학년 제재곡이고 ‘아름다운 세상’은 중학교 제재곡입니다. 스윙리듬, 쉼표로 시작하는 노래, 너무 긴 노래, 음역대가 높은 노래는 1-2학년의 발달을 고려하지 않은 느낌입니다(2학년 담당교사 H).

다음으로 제재곡의 음악 활동을 안내하는 내용에 대해 질문하였다. 대부분의 2학년 교사가 음악 활동을 안내하는 부분이 잘 보이지 않으며 지도서나 인디스쿨, 아이스크림, 출판사 콘텐츠를 확인해야만 했다는 응답을 하였다. 1학년 교사 역시 교과서에 그림과 제목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 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1-2학년 교사 모두 음악 활동 안내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았으며 교과서만으로는 지도하기가 어려워 아이스크림, 인디스쿨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1학년은 그림과 제목이 전부인 경우가 많아서 2차시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

민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이나 인디스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1학년 담당교사 A).

2학년 2학기 같은 경우 악기 연주 방법이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다(2학년 담당교사 N).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미디어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어렵습니다(2학년 담당교사 J).

2) 활동 발문 및 활동 내용

교과서에 제시된 활동과 내용의 적절성을 확인하고자 활동 발문과 활동 내용에 대해 질문하였다. 가창 활동이 주를 이루기에 발문 역시 가창과 관련된 발문 위주로 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발문이 없는 경우도 많았으며 이 경우 교과용 지도서에 발문이 제시된 경우도 있지만 보다 더 구체적이면 좋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더 나아가 발문없이 노랫말만 제시된 경우 국어 교과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는 복수의 응답도 있었다.

발문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발문이 없는 경우도 많았고 교사용 지도서에 발문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1학년 담당교사 B).

발문 유형이 ‘노래해 봅시다’만 있습니다. 활동을 보면 노랫말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2학년 담당교사 F).

발문없이 가사만 나오는 경우에는 국어 교과인가 헷갈리기도 했습니다. 동시집과 다름바가 없습니다(2학년 담당교사 I).

다음으로 통합 교과서에 나오는 음악 활동 내용에 관한 교과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일부 교사는 음악을 활용한 창의적인 수업이 가능하다고 답했지만 대부분 교사는 이번 교과서는 놀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음악 역시 놀이의 한 요소로 사용되었으며 주로 배경음악 수준으로 활용된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예전에 비해 음악이 축소된 것 같다고 응답한 교사들도 많았다. 가창곡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기악활동 내용이 매우 줄어든 것 같다는 복수의 의견도 있었다. 내용면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의 역량에 따라 수업의 질이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교사 경력이 짧은 교사들에게는 어려운 과목이라는 주변의 의견을 전해주는 교사도 있었으며 지도서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는 언급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한두 가지 방향을 선별해주면 좋겠다는 응답도 있었다.

통합교과에서는 교사가 더 창의적으로 디테일하게 질문을 해야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수업을 할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의 수업의 질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1학년 담당교사 E).

놀이에 집중되어 있는 교과서로 보입니다. 음악은 놀이의 한 부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방안 없이 재료를 학생들에게 주고 알아서 마음대로 만들어보라는 방식의 내용이 많습니다(2학년 담당교사 H).

주변 교사와 이야기하다보면 통합 교과가 창의적인 수업이라기 보다 그냥 쓱 훑어 보는 수업이 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전 교육과정 교과서는 계절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실제 삶과 일치되는 경우가 많아 흐름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번 교과서는 실제 시기와 수업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1학년 담당교사 E).

이 외에 입학 초기 진행하는 입학 적응 활동과 1학년 우리학교 교과서 내용이 겹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과 크롬 뮤직랩으로 곡만들기 활동과 뮤직비디오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활동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3) 악보

다음으로 교과서에 제시된 악보의 적절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먼저, 악보를 통해 직관적으로 어떤 음악인지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노랫말만 제시된 곡이 많아 곡 파악이 어렵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디자인이 예쁘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번 교과서에 새롭게 등장한 노래들이 많았는데 노랫말만 제시되었을 때 파악이 어려워 반드시 아이스크림, 인디스쿨 등을 활용해서 확인해야만 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가로 정간보, 가락선 악보 같은 경우는 음의 길고 짧음, 음 높이 파악이 가능하여 수업에 도움이 되며 학생들에게 지도할 수 있는 내용이 많다는 의견이 있었다. 장단이 제시되어 있지만 해당 장단이 무엇인지 어떻게 연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가사만 있는 악보는 디자인이 예쁘기만 했습니다. 흥미 유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1학년 담당교사 B).

악보가 기능적이지 않아 교사가 수업용으로 쓰기에 부적합하게 느껴집니다. 악보에 '세마치장단'이 써있으면 장단을 소개하던지 장단이 뭔지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던지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2학년 담당교사 M).

다음으로 교과서에 제시된 악보의 음악 활동에 도움이 되는지 질문하였다. 가로 정간보 같은 경우 소고가 함께 등장하기 때문에 활용하기 좋았다는 응답이 상당히 많았다. 반면 노랫말만 나온 악보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오선보가 아이들에게는 어렵다고 응답한 교사도 있었으나 오선보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교사가 대체로 많았다. 1학년부터 오선보가 반복적으로 나오면 3학년 음악 수업을 경험하기 전에 학생들이 오선보에 익숙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매우 많았던 것이 흥미로웠다. 이전 교육과정에서 많이 적용했던 손가락을 이용해 음의 높낮이와 길고 짧음 등을 배우는 활동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음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음높이를 구별하거나 음의 길고 짧음을 파악할 수 있는 악보 기능이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2학년 담당교사 F).

3학년부터 오선보가 나오기 때문에 2학년때도 미리 많이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오선보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익히면 좋겠습니다(2학년 담당교사 G).

오선보를 이미 아는 학생들도 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느낌이다. 미리 오선보를 배우지 않으면 결국 이미 오선보를 아는 학생과 모르는 학생사이의 차이가 더 커질 것이다(1학년 담당교사 E).

4) 타 영역과 비교

음악 활동이 다른 영역의 활동과 비교했을 때 내용이 구체적인지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대부분의 교사가 음악 활동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 같지 않다고 하였다. 활동 과정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체육이나 미술 활동에 비해 음악 활동 특성상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소리의 방식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문이 반드시 필요하며 노래 부르는 자세, 노래 부르는 과정, 악기 연주하는 방법, 악기 연주하는 과정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타 영역에 비해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음악 활동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제시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2학년 담당교사 K).

체육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음악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교과와 특성상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1학년 담당교사 C).

음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악 활동은 가능합니

다. 가창은 가창하는 자세가 들어 가야할 것 같습니다. 가창의 단계도 노랫말 들어보기, 한 소절씩 불러보기, 박자 연습하기와 같은 단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2학년 담당교사 I).

5) 음악 활동의 역할

통합 교과서에서 음악 활동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다음 활동을 위한 보조역할, 동기 부분에 활용하는 역할, 활동을 위한 배경음악 역할,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역할, 감정을 표현하는 역할, 정서에 도움을 주는 역할 등으로 응답하였다. 공동체 의식, 사회성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이라고 응답한 교사도 있다. 이중 주제를 돕는 보조적인 역할과 동기 유발 역할이라는 응답을 한 교사의 수가 주를 이루었다.

즐거움을 주기 위한 역할입니다. 글로 감정을 표현하듯이 느끼고 감정표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1학년 담당교사 E).

동기 유발 자료입니다. 음악적 소양을 가르치기에는 어렵습니다. 글을 배운다고 논문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음악도 들을 수 있지만 이해하고 노래하려면 음악적 요소를 배워야 합니다(2학년 담당교사 H).

6) 기타

그 외에 교과서 활용 경험을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공통적으로 나온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요즘 학생들이 놀 시간이 없어 놀이 교과서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모든 교과가 놀이에 함몰되면 안된다는 의견, 음악은 국어처럼 단계가 필요한 교과이기에 독립이 필요하다는 의견, 교사 연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음악 교육의 방향이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 학생들이 신체 활동을 선호하기 때문에 음악과 신체 활동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교수법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기악 활동이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 점에 대한 아쉬움도 제기되었다. 모든 영역의 인터뷰 결과는 <Table 1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Table 10> Interview results

Area	Key content
The repertoire	• Appropriateness of repertoire selection for the instructional context • Theme-driven integration of music activities • Inappropriate repertoire for students' developmental levels (length, range, rhythm) • Need for supplementary materials beyond textbook
Activity & Content	• Dominance of singing activities • Use of music as a component of play • Presentation of lyrics without guiding questions, leading to blurred boundaries with language arts • Vagueness of prompts in teacher guides • Need for teacher-driven creativity and content supplementation • Instructional challenges for novice teachers • Lack of clarity regarding key instructional focus • Reduced emphasis on instrumental activities compared to the previous curriculum
Notation	• Prevalence of songs presented without accompanying sheet music • Insufficient visual aids for recognizing steady beat, pitch, and rhythmic values • Lack of explicit instruction on how to read musical notation • Instructional challenges in teaching songs without musical scores • Need for activities incorporating hand gestures to enhance pitch and rhythm awareness • Recommendation for the use of standard staff notation (five-line staff)
Function of music	• Provision of enjoyment through musical engagement • Role of music as a medium for emotional expression • Contribution of music to the development of social skills and a sense of community • Function of music as a transitional or supportive element within educational activities • Tendency for music to be limited to background use for motivation or atmospheric effect
Comparison with other subjects	• Greater structural clarity and specificity in physical education and visual arts • Lack of systematic and detailed presentation in music education • Enhancement of vocal instruction through explicit postural and procedural guidance • Benefits of process-oriented, sequential instruction in instrumental activities
Additional points	• Educational value of a play-centered structure without excessive dominance • The need for standalone implementation of music education, given its similarity to language education in requiring developmental progression • Growing demand for enhanced teacher training for integrated instruction • Pedagogical need for the organic integration of music and physical movement

V. 결론 및 제언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즐거운 생활’과 교사 대상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 분석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곡이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교사 인터뷰를 통해 장르는 다양하지만 주제에 끼워 맞춘 느낌이 드는 곡이 많으며 학생 발달 단계와 맞지 않은 제재곡이 많다는 의견이 있었다. 교과서에 수업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가 많지 않아 교과서만으로 수업 진행이 어렵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활동 영역 및 내용 분석을 통해 음악 활동의 역할에 대해 분석하였다. 교과서 분석을 통해 가창 활동이 주를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문 분석 결과 음악 활동 중심의 발문도 있었으나 해당 단원의 주제를 돕는 도구적 역할로만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교사 인터뷰에서도 유사한 응답이 나왔다. 가창 중심의 단순한 발문이 대부분이며 음악 활동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주제에 끼워 맞춘 느낌을 받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음악 활동은 보조적인 역할, 동기 부여를 위한 역할, 배경 음악 역할로 사용된 것 같다는 응답이 있었던 반면 즐거움을 주는 역할, 감성을 표현하는 역할, 공동체 의식 및 사회성을 기르는 역할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악보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교과서 분석을 통해 총 70개의 제재곡 중 노랫말만 제시한 제재곡이 51개가 있음을 확인했는데, 교사 인터뷰를 통해 가사만 있는 악보는 곡 분석이 어렵고 박자와 리듬의 이해가 쉽지 않아 수업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음악 요소가 시각적으로 보이는 악보와 악보 읽는 법에 대한 설명 역시 필요하며 오선보 활용 역시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넷째, 타 영역과의 비교에 대한 내용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과서 분석을 통해 다른 영역에 비해 음악 활동 과정이 구체적이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교사 인터뷰 역시 유사한 응답을 듣게 되었는데 이는 음악 교과의 특수성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기악 활동이나 가창 활동 역시 구체적으로 과정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과서 분석에서는 진행하지 않았던 기타 영역에 대한 교사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놀이 교과서가 필요하지만 모든 교과에 함몰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음악 교과는 학습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어 교과처럼 독립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음악과 신체활동의 연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2022 개정 통합 교육과정은 '즐거운 생활' 교과가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교육과정의 의도와 실제 구현된 내용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추후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시 악곡은 다양하게 제시하되 주제에 맞춘 악곡이 아닌 학생들의 인지 발달 과정에 맞는 곡 선정이 필요하다. 단순히 듣기 좋은 노래가 아닌 학생들의 음역에 맞으며 길거나 복잡하지 않은 곡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음악 고유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 아무래도 기

악, 감상, 창작 활동에 비해 가창 활동이 많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을 떠올리며 노래하기’, ‘~을 상상하며 노래하기’ 외에 ‘음의 높고 낮음을 생각하며 노래하기’, ‘음의 길고 짧음을 생각하며 노래하기’, ‘마음을 표현하며 노래하기’와 같은 다양한 활동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만 음악 활동이 단원의 주제를 돕는 역할과 더불어 음악성 함양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노랫말만 제시되는 악보는 지양해야 한다. 노랫말만 제시되는 경우 국어 교과와 헷갈리는 경우도 발생하며 무엇보다 음악적 요소를 발견하기 힘들다. 교사 인터뷰를 통해 나온 응답처럼 음악적 요소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악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복수의 교사가 응답한 것처럼 반복적으로 자연스럽게 오선보를 제시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넷째, 음악 영역에서도 타활동과 같이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창과 같은 경우 노래 부르는 자세, 가창 활동의 과정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가창 활동의 과정을 노랫말 들어보기, 한 소절씩 불러보기, 박자 연습하기로 구분해서 보여줄 수 있다. 현재 소고 연주하는 방법이 자세한 과정을 통해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교과서에 나오는 타악기는 모두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춘 교과서 개발은 오랜 시간의 연구와 노력이 집약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현행 ‘즐거운 생활’ 교과에는 개선이 필요한 요소가 존재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통합 교육과정은 다양한 교과 내용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학습자가 자연스럽게 지식을 습득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교육 방식이다. 그러나 통합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개별 교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경험이 선행되어야 한다. 각 교과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통합 교육은 단순한 내용의 병합에 그쳐 피상적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통합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에 다양한 교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교과간 균형있는 통합 방안을 모색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특히 학교 현장 교사들이 개발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이론과 실제적 경험이 결합된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이 필요하다. 앞으로 ‘즐거운 생활’과 관련된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정교한 통합 교육과정이 설계되길 기대한다.

References

- Gwak, H. K., & Lee, H. J. (2024). Analysis of the ecological music education content in the elementary school integrated textbook ‘Pleasure life’.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61, 47-64.

- Jeong, K. S., Kang, C. Y., & Kwon, D. T. (2011). A description of qualities of elementary lower-grade students' learning style.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1(3), 181-203.
- Kim, E. J. (2024). Comparison of music learning content in the Pleasant Life curriculum and textbooks under the 2015 and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61, 1-25.
- Kim, G. S. (2024). A critical study on the one-line picture music score in Pleasant Life as integrated school subjects of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60, 1-19.
- Kim, I. S. (2020). A problem-based learning model for integrated subjects and its implementation in elementary schools. *Journal of Educational Community Research and Practice*, 2(2), 71-91.
- Kim, S. K. (2010). Integrated curricular characteristics of the music activities in "Pleasant life".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10, 19-39.
- Kwon, D. W. (2018). Change of integrated subjects and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Music and Education*, 46(46), 29-53.
- Lee, C. H., & Park, C. H. (2024). How have the integrated subject curriculum and textbooks evolved? *Journal of Curriculum Integration*, 18(2), 81-116.
- Lee, D. H., & Park, J. Y. (2024a). A study on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content in the integrated curriculum of "Pleasant life" for 1st and 2nd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3(3), 135-165.
- Lee, D. H., & Park, J. Y. (2024b) Analysi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content in 'Pleasant life', the 2022 revised integrated textbook for 1st and 2nd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3(4), 133-163.
- Lee, K. J. (2022). Exploring the implications of Dewey's perspective on the subject-matter for the development of integrated curriculum in elementary education. *Journal of Curriculum Integration*, 16(1), 69-89.
- Lee, M. K. (2011). Arts integration education in the U.S.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n education. *Journal of Korean Education*, 38(3), 33-52.
- Lee, Y. M., & Park, H. J. (2020). A study on the sources of development of integrated curriculum for elementary school teachers. *Journal of Curriculum Integration*, 14(4), 53-75.
- Ministry of Education (1981).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No. 442. [Supplementary 2].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Education (2015). *Disciplined life, wise life, pleasant life curriculum*. No. 2015-74. [Supplementary 15].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Education (2022). *Disciplined life, wise life, pleasant life curriculum*. No. 2015-74. [Supplementary 15]. Ministry of Education.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2025). *Definition of integrated subjects and curriculum policy*.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Oh, J. H., Choi, M. S., Moon, K. T., Yang, S. Y., & Park, J. H. (2024). Analysis of issues in the music area of elementary school integrated curriculum ‘Pleasant life’ and implications on its direction through review of foreign music curricula. *Future Music Education Research*, 9(1), 187-213.

Park, C. H. (2012). The history of integrated curriculum for elementary school in Korea. *Journal of Curriculum Integration*, 6(1), 195-213.

Song, J. J., & Kim, A. H. (2024). Reflections and future challenges of the 2022 revised Pleasant Life curriculum: A comparative analysis of early-grade music curriculum in international contexts. *The Journal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27(4), 105-127.

Yang, S. Y. (2024). An analysis of the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integration of ‘Pleasant life’ over time through the music curriculum.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14(3), 25-46.

Yang, S. Y., Lim, E. J., Lee, S. Y., Park, J. H., & Song, J. H. (2024).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music education in ‘Pleasant life’ in the integrated curriculum of elementary school.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3(3), 25-46.